

2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15.81 (-16.26)	711.26 (-8.9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612 (+0.008)	1469.35 (+1.65)



## 정의선, 美 ‘31조 통큰투자’… 트럼프 “현대차 무관세”

현대차그룹 美 관세장벽 정면돌파  
올부터 2028년까지 210억弗 투자  
전기차·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집중  
HMGMA 생산능력 50만대로 확대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진행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와 ‘트럼프발’ 관세장벽 정면돌파에 나섰다. <관련기사 3편>

정의선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 참석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동안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의 분야에 21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현대(차)는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루이지애나),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원내총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향후 50만대로 확대하는 한편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의 최대 해외 투자 국가이자 사업 국가이며, 미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정말로 위대한 회사”라며 “현대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4월 2일 직전에 이뤄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 등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허가를 얻는데 어떠한 것이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찾아오라. 당신들을 위해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해외 현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역



메트로신문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성료

김영의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5 100세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및 미국 대규모 투자는 국내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라며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소비심리 4개월 연속 ‘비관적’

한은, 3월 소비자심리지수 93.4  
6개 지표 중 대부분 하락세 보여  
수도권 거래 늘어 집값은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듯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달 소비자 지수에 포함하는 6개 지수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자는 과거 6개월 간 현재생활형편(87)은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앞으로 6개월 후 생활 형편은 전담 평가한 것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수입전망(96)은 1p, 소비지출전망은 104로 2p 하락했다. 소비자는 앞으로 6개월 뒤 가계수입이 좋아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지출도 줄어들 가능

성은 있지만, 크게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도 3p 하락해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가계부채(100)가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전망(105)은 한 달 새 6p가 뛰었다. 이해영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 전망은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이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늘면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 간 기대하는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2~3%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많았다. 3년 후와 5년 후의 기대인플레이션도 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50.5%로 가장 많았고, 공공요금(48.8%), 공업제품(31.2%) 순이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공업 제품(+7.3%p)과 농축수산물(+3.8%p)의 응답비중은 증가했지만, 석유류제품(-17.1%)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내년 예산 700조 넘는다… 민생·내수에 방점

2026 예산안 편성·운용 계획  
내수진작·첨단산업 투자로 경기 부양  
지역소멸 대응 등 지속가능성 확보



권한대행 주재(사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뒀던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책,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

### 메트로 한줄뉴스



▲尹측 김계리 변호사, ‘국회의원 총사퇴’ 이인주에 “옳은말… 드디어 계몽?” /사진 뉴스사  
▲ ‘민주당 출신’ 총암고 이사장, “尹 부끄럽다” 발언에… 동문회장단 “사퇴하라”

▲ 한 대법 “헌법재판소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존중해야”  
▲ 김용민 “윤 파면시 총선·대선 같이 치르는 것 가능할 수도”

▲ 박용진, 연금개혁 ‘개고기’ 빚던 이준석에 “무책임한 정치선동”  
▲ 민주당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비극 반복 않도록 예방조치 법적 토대 만들 것”

# 5년 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등 4대전략 추진

정부,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  
美-中 관세전쟁 격화 가능성에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 대비책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뉴시스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

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놴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

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간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십(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Playlist**

혈당 다이어트 식단  
슬로우모닝  
하루 15분 명상  
반려 식물 키우기  
눈뜨면 레몬수 한잔  
충분한 수면

Play the 좋은 루틴  
그리고 좋은 보험 하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부

## ‘관세 대응’ 에너지협력 강화 美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산업·에너지 협력 활성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에너지 협력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활용할 태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이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비롯한 한-알래스카, 한-미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알래스카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석유 생산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 파트너로 언급한 일본이 지난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대만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알래스카 개발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안덕근 장관 면담에 이어 방한 기간 중 SK, 포스코, 한화, 세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LNG,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한미 장관급 정책 대화,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현대차그룹, 실적·신사업 기대감 고조... 주가 일제 강세

정 회장, 대미 수출 여건 개선  
올해 판매목표 재설정 가능성  
현대차 주가 3% 이상 상승

현대자동차와 기아주가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로 관세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그 바탕에는 실적과 밸류업, 신사업 기대감이 깔려 있다.

### ◆정의선 회장의 통근 투자, 현대차그룹株 날아올라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전장보다 3.29% 오른 22만원에 마감했다. 기아는 2.13% 오른 10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모비스(0.72%), 현대위아(0.62%) 등 그룹주 일부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정 회장이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신규 대미 투자 청사진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시장에선 각국 대미 관세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하는 ‘트럼프 관세’ 대응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향후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현대차 그룹 주주환원 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다”고 덧붙였다.

유민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024년 기준 한국 포함 기타 거점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 기준, 현대차 66만3000대, 기아 47만6000대 분

에 부과될 우려가 있었던 약 1조5000억원~1조8000억원(현지 생산량조정에 따라 그 이하) 내외의 보편관세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수적 ‘판매’ 확대 청신호

관세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올해 영업이익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화투자증권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영향도 분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보편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2%포인트, 2.4%포인트 하락한다.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률 하락폭은 2.3%포인트로 분석된다.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예상물량인 115만대를 기준으로 현지 평균판매단가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판매 목표를 다시 쓸 가능

성이 있다고 본다. 현대차의 올해 연간 판매 목표는 지난해 판매보다 0.6% 증가한 424만대로 설정했다. 기아는 3.5% 증가한 320만대로 제시했다. 양사 합산 판매 목표는 744만대다. 지난해 실제 판매액(723만대)보다는 2.9%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매출 증가율 목표치는 각각 4~5%, 1.3%다. 현대차는 올해 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를 늘려 수익성 확보 할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은 “현대차는 코로나19 당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체질 개선에 기반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시장 대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례가 있다”며 “2025년의 불확실성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 신설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설립 계획 밝혀  
8.5조 투자... 2027년 상업생산 목표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톤 생산 규모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특화 제철소를 건설한다. 이번 투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총 8조5127억원(58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규 제철소는 전기로를 채택한 일관제철소로, 원료 생산부터 제품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전기로 기반 제철소는 전통적인 고로(용광로)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

철은 70년 이상의 전기로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7~2010년 전기로 기반 자동차 강판 100만 톤을 생산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로를 활용한 1.0기가파스칼(GPa)급 탄소저감 고급 판재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새롭게 건설될 제철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270만 톤 규모로, 주요 설비는 직접환원철(DRI) 생산 설비, 전기로, 열연 및 냉연강판 생산 설비 등이 포함된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현대차·기아 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차종에 들어가는 강판을 주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과 유럽 완성차 업체 시장 공략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기재부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중점 투자”

>> 1면 ‘내년 예산 700조...’서 계속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

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생의 **꿈** 교사의 **능치** 부모의 **신뢰**

# 두근두근 신학기

## 우리 함께 지켜요!

학교 갈 때!

- 가 기 전 살피고!
- 나 부터 멈추고!
- 다 함께 천천히!

교실에서!

- 만 나면 먼저 인사하기!
- 나 부터 고운말쓰기!
- 다 른 의견에 귀 기울이기!

집에 갈 때!

- 신 선한 바람으로 환기!
- 나 부터 손 씻기!
- 다 함께 마스크 쓰기!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이 행복한 교육 ‘인천서 실현’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성장하라”

‘학생성공시대’, ‘결대로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읽겠쓰 프로젝트’ 등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시한 교육 철학이 교육계 전반에 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새 학년을 맞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정책과 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학생성공시대’를 교육의 중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온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신학기 교육 방향과 비전을 들어봤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 학생 성공시대, 행복한 교육을 위한 길  
“성공은 경쟁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비전인 ‘학생 성공시대’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성훈 교육감은 “성공은 남과의 경쟁을 통해 얻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학생들이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말하는 ‘학생 성공시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길을 찾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도 교육감은 ‘결대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이 타고난 성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중예술고 ▲글로벌세프코 ▲바이오과학고 ▲소방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를 설립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설립을 목표로 ▲대중예술중 ▲예술중 ▲체육중 개교를 준비 중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꿈두레 교육과정)과 학교 밖 연계 교육과정(꿈이음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도 마련했다.

◆ 공약 이행률 86%, 교육 변화를 선도하다

“공약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약속” 도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 기간 동안 110개의 공약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이 86%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공약 이행의 핵심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라며 “공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식을 잃은 행인을 구한 학생들의 사례에서 보듯 인성교육이 강화됐으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인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진로 교육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쟁 아닌 자기 길 찾는 교육 추구  
학점제 맞춤형 진로 선택권 확대  
특성화고 신설, 공약 이행률 86%  
인성·진로·시민 교육 성과 가시화

또한 ▲국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UN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세계시민 교육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공약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읽겠쓰 프로젝트, 인천의 교육 문화를 바꾸다

“질문하고 상상하는 교육도시 인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읽겠쓰(읽고, 걷고, 쓰다)’ 프로젝트는 시행 2년 만에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7만 5,410명의 학생이 책을 저술했으며, 4,625권의 책이 출간됐다.

특히 지난해 학교도서관 대출 권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했고, 공공도서관 대출도 9.9% 늘어나며 인천 시민의 독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 교육감은 “읽겠쓰를 통해 인천을 질문하고 상상하는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앞으로 읽겠쓰 기반의 관찰, 질문, 탐구, 행동 중심의 교육을 전국화·세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만 5세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현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초·중·고3 학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48억 원을 투입해 학력 향상, 진로 교육,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학생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대학형 전공과 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장애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도록 했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13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141개 학교에 148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주력  
“교권과 학생 인권, 함께 존중받아야”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법률·상담·치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악성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 쓰기 프로젝트 교육문화 변화  
무상교육 실현, 기회 격차 완화  
교권 보호 전담조직·민원 대응 AI 시대 대비 삶 중심 교육 강화

◆ 미래 교육 방향, “삶을 배움으로, 학교를 삶으로”... “인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

도 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핵심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고 정의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천을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변화시켜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진로교육, 특색

있는 교육정책 등이 인천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이 질문하고 상상하는 품격 있는 교육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기를 당부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metroseoul.co.kr



(왼쪽 사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옥련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동암초등학교 급식실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 출생 1960 (충남 천안)  
▲ 학력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85년 추) 부평고등학교(1979년 추)  
▲ 주요경력 (현) 21대 인천광역시교육감 (전) 20대 인천광역시교육감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부회장 (전) (사)사람과 문화 이사 (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지도위원 (전) 참교육 장학사업회 상임이사 2003 ~ 2006년 (전) 11, 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2016. 3 ~ 2018. 2월 행복배움학교 동암중학교 교장 1985년 성현고(현 인제고) 교사로 교직 시작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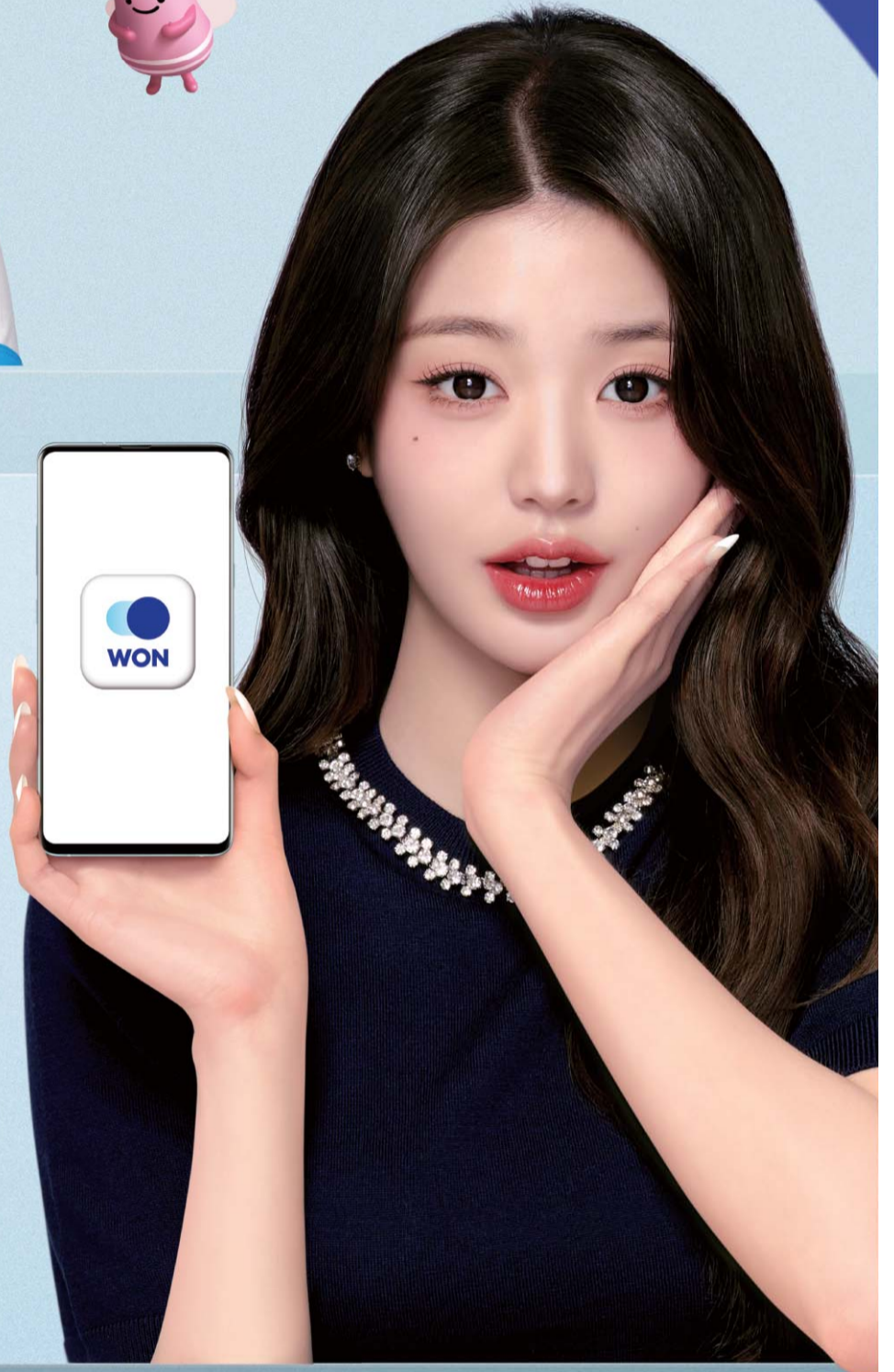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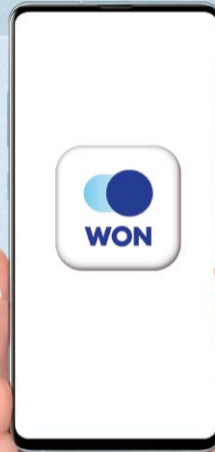
“간편하니까!”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부동산을 한 곳에



더 **럭키비키**한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WON영이**랑

**WON  
MORE**



“똑똑하니까!”

시대출상담부터  
SI투자성향분석까지



“특별하니까!”

꿀머니, e스포츠,  
택배예약 등 특별한 서비스



※우리WON뱅크 앱은 사용자의 AOS/i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WON뱅크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유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이용 안내시간 평일(09-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2313(2025.03.11~2026.03.12)



#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을” vs “없는 죄 만들어 억지 기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선거법 2심 오늘 판결

국민의힘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장외투쟁 중단, 국회로 돌아와야”

민주당 “기억 처벌, 납득 어렵고  
낙선자만 처벌, 형평성에 어긋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공세를 끌어올리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 주장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지난해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의원직 박탈형으로,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유죄로 선고했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



권성동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

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항소심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강화할 때에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은 권력 분립 국가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뿐”이라며 “결정이 나오면 불복해서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면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 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면서 “또한,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문기 관련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로,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증폭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보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만장일치’ 조율중?... 선고 내달로 넘어가나

### 현재 ‘尹 탄핵’ 변론종결 한달

의견 갈리면 국민분열 조장 우려  
재판관 이견조정 시간 걸리는 듯  
이번주 선고 어려울 것 전망 우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지 한달째가 되는 25일, 현재는 여전히 선고기일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고가 이번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4일)에도 재판관들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후, 1시간 가량 평의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기에,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달 둘째주나 셋째주에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시스

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면, 국민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만장일치’를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

거기에는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던 현재가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자, 야권에서는 현재 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또 판결문을 살펴보면 현재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이번주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에 선고했고, 27일은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기 선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현재가 이를 연속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뿐이며, 한주에 3번 이상 선고한 적도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8일 선고는 희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만일 현재가 오는 26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내주로 넘어간다. 현재는 통상 2~3일전 선고기일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되기에,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그 전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만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전날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목격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역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글로벌 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시급

### 한덕수, 세달만에 직무복귀

“관세폭풍 헤쳐 나가는데 모든역량  
목전 닷친 민생위기 숨통 틔우기에  
여야 막론하고 적극 협의 하겠다”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는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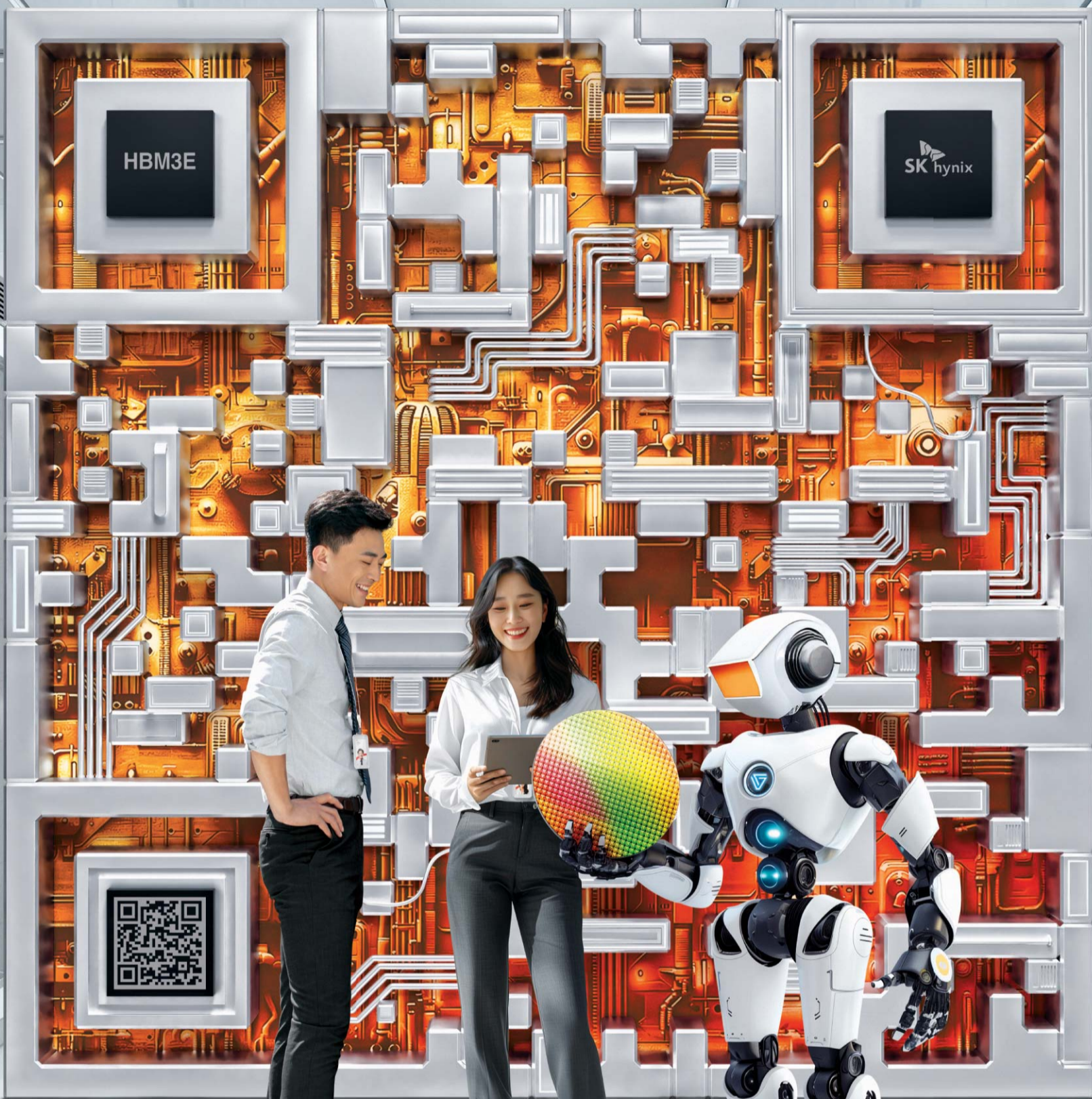
전에 닷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예진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야구·축구팬 공략 나선 은행가, 스포츠 특화 예적금 눈길

부산·광주銀, 스포츠 예·적금 야구팀 성적따라 우대금리 제공 신한銀 쓸뱅크 쓸야구플러스 미션 수행하면 입장권 등 응모 하나銀, K리그 우승적금 출시

프로야구(KBO)와 프로축구(K리그)가 흥행을 지속하면서 은행권이 취급하는 스포츠 특화 상품도 눈길을 끈다. 각 지방은행은 매년 선보인 '응원 예·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을 추가해 응원의 재미를 더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은행 앱에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K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도 프로축구 응원 예·적금을 선보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지역 연고지 프로야구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응원 예·적금'을 선보이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이달 '롯데이언츠 승리 기원 예·적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개막전 롯데-LG의 경기. 이날 전국의 5개 구장에서 치러진 개막전은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뉴시스

금'을 출시했고, 광주은행도 지난 1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선보였다. iM뱅크도 삼성라이온즈 관련 예·적금 상품을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각 지방은행은 매년 응원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응원 예·적금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워서다. 지난 22일 개막한 프로야구는 개막

전에 이어 23일 경기에서도 전 구장 매진을 기록했고, 이틀 간 관객 수도 22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프로야구와 응원 예·적금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각 지방은행은 스포츠 예·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을 개선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시즌 성적에 더해 승리 수, 타율, 안타·

도루 등 요건을 추가해 상품의 재미를 더했다.

부산은행은 올해부터 롯데이언츠 예·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을 승리 수로 변경했다. 롯데이언츠가 시즌 동안 승리한 경기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 및 우승 시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광주은행은 기아타이거즈 예·적금의 우대금리 요건에 홈런, 도루, 팀 타율 등을 추가했다. 기아타이거즈의 시즌 성적에 더해, '40홈런-40도루 타자 배출', '팀 타율 3할 이상' 등 이벤트 요건을 추가했다.

KBO 타이틀 스폰서(대회의 명명권을 가진 최대 후원 기업)인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선보인 '신한 프로야구 적금'을 올해는 출시하지 않았다. 대신 자사 모바일 뱅킹 앱 '쓸뱅크'에 프로야구 응원 플랫폼 '쓸야구 플러스'를 선보였다. 쓸야구 플러스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면 지급되는 '야구공'을

통해 입장권, 유니폼 등 상품에 응모할 수 있고, 향후 MVP 선정 등 응원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월 15일 개막 이후 흥행을 지속 중인 프로축구(K리그)에도 응원 예·적금 상품이 등장했다.

K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리그 우승적금'을 선보였다. 가입 시 응원팀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팀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광주은행도 광주FC 경기 관람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광주FC적금'을 출시해 광주 FC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프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며 "지난해에도 각종 응원 예·적금이 한도 소진으로 조기에 완판되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올해도 스포츠 관련 상품이 많은 성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KB국민카드  
이지토커 고객패널  
내달 2일까지 신청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과의 열린 소통 채널 '이지토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지토커'는 고객 패널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등 분야에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다.

고객패널은 15명 내외로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내달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설문조사 전문 온라인 고객패널 500명도 추가로 선정한다. 패널로 선정된 고객은 연말까지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기 간담회 등 활동에 참여한다.

롯데카드  
산불 피해고객 대상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롯데카드는 대형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해준다.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라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한다.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장기 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등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분할 카드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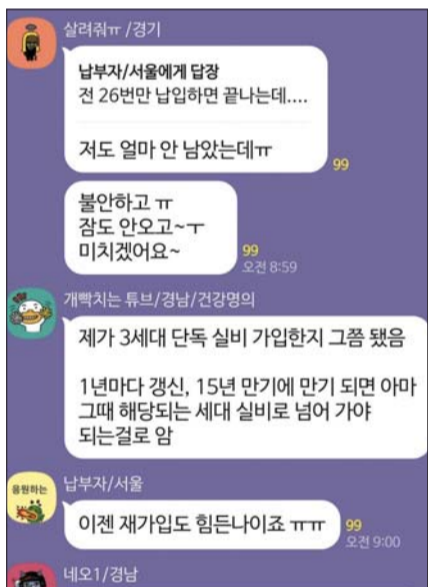
## MG손보 '청산 공포'... 새마을금고 공제까지 불안 확산

수십년 납입한 보험, 해약 고민 피해자 모임 단독방 1500명 육박 새마을금고 공제 혼동에 문의 ↑ 관계자 "법적기반 달라 영향 없어"

# 40대 A씨는 최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17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그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 오랜 납부 이력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10년 이상 납부해 온 사람들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해약환급금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험 이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MG손해보험 청산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에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MG손보에 이어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 단독방 캡처.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문제는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MG손보의 청산으로 계약이 소멸

하면 남아있는 보장 기간도 소멸한다. 만약 3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100세까지 남은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초과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남아 있는 보장 기간은 계약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MG손보 계약자 사이에서는 실제로 'MG손해보험 피해자모임방'이라는 단체방이 만들어졌다. 단체방은 정원인 1500명에 육박하고 제2의 피해자모임방도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MG손보 청산 소식이 알려지고 공제 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가입자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금고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지역 A금고 이사장은 "MG손보 매각 실패 후 공제 해지를 문의하는 가

입자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공제는 민영 손해보험사와 법적·제도적 기반 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MG손보의 부실이 곧바로 새마을금고 공제로 확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

MG손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전형적인 민영 손보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감독한다. 보험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 아니므로 공제는 공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의 연관은 사실상 없고 브랜드만 일부 공유할 뿐"이라며 "새마을금고 공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직접 판매를 대행을 하는 새마을금고만의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G손보 피해자분들께서 공제까지 해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 금고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MG손보가 만약 청산 또는 파산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075호 모집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서 접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다. 신청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

(2025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4,075 (2,392)	4,279 (2,535)	3,875 (2,202)	6,587 (4,799)	18,816 (11,928)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시장 상황, 퇴거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 유형'과 시

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II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이차전지 소재 공장 가동률 ‘뚝뚝’ “정부 차원의 산업 지원정책 절실”

리튬·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 급락  
글로벌 공급과잉 겹치며 부담 커져  
“기업만으로 끌고 나가기 어려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업황 부진이 맞물린 가운데 주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리튬, 니켈 등 주요 원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품 판가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역래깅 효과’의 악영향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소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소재 공장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동박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64.7%로 2022년 97.5%, 2023년 76.9%에 비해 지속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에너지소재부문을 사업을 민감한 영역으로 간주해 올해 공장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양극재 공장 가동률이 지난 2021년 70%대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 3분기 30% 수준까지 감소한 바 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의 글로벌 양극재 점유율은 중국 기업에 밀려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가 2년간 적용된 상황에

서 2026년까지 견뎌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에코프로비엠과 엘엔에프 또한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엘엔에프는 지난 1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가동률 감소로 손실을 보게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말까지 포항 4캠퍼스에 4732억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2026년까지로 미뤘다.

LG화학의 첨단소재 사업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65.9%로 전년 가동률 53.9% 대비 상승률을 보였다.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2월 북미 고객을 중심으로 양극재 출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설비 효율화를 위해 보수적인 생산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능력은 기존 2025년 17만톤, 2026년 20만톤에서 각각 15만톤, 17만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이차전지 소재 업계의 재무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포스코퓨처엠의 부채비율은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했던 지난 2021년 60.9%에서 138.9%로 급등했

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신종자본증권 3360억원 규모를 발행하며 회계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북미 시장을 겨냥해 GM과의 양극재 합작법인을 기반으로 캐나다 퀘벡 지역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합한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중 ‘전구체 프리 양극재’를 양산하며 시장 공략에 나설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말 대량 양산을 목표로 고체 전해질 개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수익성과 기술 투자를 동시에 끌고 가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비용 완화 조치나 제도적 유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2025 카니발 외장.

## 안전·편의기능 강화... “연비 고민마세요”



###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로 유지비 걱정 덜어  
모든 트림 ‘차로 유지 보조 2’ 탑재

“이젠 더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최근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다. 카니발은 넓은 공간과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추고 있어 출시 후 꾸준히 패밀리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연비다. 무겁고 넓은 차체로 안전성과 공간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차량 이동을 위해서는 연료소모가 컸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라인업이 출시되면서 이같은 고민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소 여행을 즐기는 가족에게 ‘안성맞춤’인 차량이다.

최근 국내 대표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강원도에 위치한 춘천역 일대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20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이 차는 이전 모델 대비 안전과 편의 사양을 강화했다. 모든 트림에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을 강화한 ‘차로 유지 보조

(LFA) 2’를 탑재했다. 또 정전식 센서를 활용한 운전대 그립 감지 기능 등을 적용했다. 덕분에 고속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 중앙으로 똑똑하게 달린다. 덕분에 장거리 주행에도 운전자의 피로도는 크지 않았다.

실내 공간성도 매력적이다. 카니발은 길이 5155mm, 높이 1785mm(루프랙 포함)에 달한다. 너비는 1995mm, 휠베이스(앞·뒷바퀴 중심 축간거리)는 3090mm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시승 차량에는 두 가족(8명)이 탑승했지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9인승은 4열까지 사용하면 적재공간이 협소해 아쉬움이 있다.

차량의 주행 성능은 부족함이 안정적이다. 1.6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강력하지 않지만 카니발을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1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도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와인딩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연비다. 두 가족이 차량에 탑승하고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했지만 연비는 14.7km/L로 뛰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대형 차량임에도 이같은 합리적인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의 진화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엔솔, 글로벌 고객사 파트너십 강화

북미 등 시장변화 선제 대응 나서  
“안정적으로 기업가치 높여 나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미 시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 기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4년 12월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품팩터’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비전 공유회를 통해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주요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배터리를 넘어 LFP(리튬·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산·철)와 LMFP(리튬·망간·인산·철),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원통형 46시리즈,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폼팩터 개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글로벌 생산공장 운영 최적화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에 단독공장과 합작공장 등 8개의 공장을 운영 및 건설 중이다. 혼다·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등 내년 북미에서 가동되는 공장만 총 5곳으로 늘어나며 글로벌 생산 역량이 한층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미국 미시간 랜싱에 위치한 열티엄셀즈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가 이뤄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을 주요 고객사에 적기에 셀을 공급할 수 있는 북미 주요 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GM과의 협력이 굳건한 상황에서 한 고객사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3공장은 대부분 건설된 상태로 즉각 설비 구축이 가능한 상태라 신규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새롭게 증설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감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생산 시설 운영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 건 글로벌 생산 공장 오퍼레이션 노하우 덕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열티엄셀즈 2공장과 인도네시아의 현대차 합작공장의 경우 가동할 때 수율 90%를 달성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안정적이고 기업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투자 확대

경북도-구미시 6000억 투자 협약

LG이노텍이 25일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60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FC-BGA) 양산라인 확대 및 고부가 카메라 모듈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선다.

투자는 오는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번 추가 투자로 기관·광학 설루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LG이노텍은 2022년에도

구미에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드림팩토리’를 구축하고, FC-BGA 생산 및 카메라 모듈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에 PC용 FC-BGA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차세대 기관 기술 내재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생산라인도 이원화해 기존 모델은 베트남 공장에서, 신모델 대응용 고부가 제품은 구미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현대차-센디, AI 운송 플랫폼 구축 맞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가 국내 친환경 물류 시장 확대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기업과 협력한다.

현대차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센디와 ‘ST1 기반 AI 운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의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과 센디의 AI 기반 운송 최적화 프로그램을 결합해 화물 차주의 매출 안정성과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 ‘지역’ 전략축 더해 판 키운다 B2B·플랫폼으로 질적 성장

## LG전자

글로벌 사우스에 집중 투자  
AI 데이터센터 등 기회 모색  
논하드웨어 수익 비중 71%  
서비스 중심 순환모델 확대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와 중장기 사업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부터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주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개방됐다.

조주완 사장은 “지난해 최대 매출 등 견조한 경영성과를 기록한 데에는 B2B, 논하드웨어, D2C 등의 ‘질적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며 “질적 성장 영역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로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3%포인트 늘었고 영업이익의 비중은 71%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질적 성장 영역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수요와 가격 변동성이 낮고 고객 관계 기반의 확장성을 갖춘 B2B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순환형 모델의 논하드웨어 사업을 확대하며 사업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전사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지정학적 변화 대응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성장기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홈 중심 사업에서 모빌리티,

커머셜 등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과 수많은 디바이스를 플랫폼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반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기존 성장전략에 ‘지역’이라는 전략의 축을 더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지역에서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사업 기회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지역으로 수많은 IT 기업이 모이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것이다.

인도 역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지역이다. LG전자는 지난 28년간 구축해 온 현지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 특화 라인업, 생산·서비스·연구 개발(R&D)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사장은 “관세”발효가 되면 지체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플레이북’을 만들어 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며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베트남 등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되,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확대하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준비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각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들 역시 전사 전략방향에 맞춰 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HS사업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가전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빌트인, 부품 등 B2B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은 해외로 적극 확대하고 AI 홈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MS사업본부는 TV, 사이니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기반 사업을 총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webOS를 축으로 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VS사업본부는 SDV(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제어, 관리하는 자동차) 전환에 주력하는 동시에 수익성 기반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집중한다.

신설 ES(에코솔루션)사업본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산업용 난방·환기·냉방(HVAC) 사업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전사 B2B 사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해 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는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건을 비롯,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고부가로 재편 가속… ‘적자 탈출’ 승부수”

### 롯데케미칼

과감한 조정 통해 본원 경쟁력 확보

“현재 진행 중인 고부가 사업구조로의 사업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금 흐름 중심의 엄중한 경영을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원적인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사 혁신 활동들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사진)는 2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제49기 롯데케미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 같은 에셋 라이트(자산 경량화) 전략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 재편에 매진 중이다.

이 대표는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 각 사업을 수시로 재정립하고, 고부가 사업은 자원을 집중해 더욱 고도화하고, 적자 사업은 과감한 운영 축소 및 조정



등을 실시해 사업 구조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49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4개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재무제표 승인에 포함된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사내이사 선임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 회장을 재선임하고, 황민재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이사 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기타비상무이사로는 김종근 롯데지주 경영혁신1팀장을 선임했다.

이어 신임 사외이사에는 조혜성 대상(주)상담역, 서휘원 전 (주)삼양사 AMBU장을 선임했으며, 서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도 겸직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내실 경영·신사업 전환으로 반등 모색”

### 금호석유화학

3대 성장 전략으로 지속 가능성 ↑

“올해도 어려운 업황이 지속되겠지만 내실 경영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바이오·지속가능소재,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등 3대 성장 사업으로 기존 사업 체질 개선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갈 것입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사장은 25일 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건물에서 개최된 제 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업황 악화에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중장기 3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 대표는 “첫째,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을 강화하고, 둘째, 바이오 및 지속가능 소재 사업을 확대하며, 셋째,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총 결과, ▲사내이사 박준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수 선임의 건 등을 포함한 5개 안건 전부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사외이사 4인 선임 건의 경우 기존 박상수, 권태균, 이지윤 후보가 각각 재선임 되었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과거 세 차례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주주 박철완 측은 올해 별다른 주주제안을 내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일 주총 결과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에 대한 재신임을 비롯해 회사 측에서 선임한 사외이사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 기업 운영과 업황 회복에 집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 중간배당 체계 손질… ‘주주 권익’ 강화

### LG생활건강

중간배당 기준일 ‘유연화’  
정관 변경 등 6개 안건 통과

LG생활건강이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해 6조 8119억원이다. 영업이익은 4590억원

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은 20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커졌다.

올해부터 LG생활건강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성향을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장한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3500원, 우선주 3550원으로 의결했고 배당성향은 31%다.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간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 승인 건도 의결했다.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현행 ‘7월 1일 0시’에서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고, 이사회는 배당 기준일 확정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의 일환으로 LG생활건강은 주주들이 배당정책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 선임에는 사내이사로서 이명석 전무(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서 이상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각각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상철·이승윤 교수를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3조6000억 유상증자, 결국 주주 위한 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투자-후성장’ 전략 강조

“유럽연합의 군수품 역내 조달 등이 큰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투자가 절실합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한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사진)는 25일 경기 성남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가 필수라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해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주총에서 별도로 질의응답을 갖고 “해외 입찰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하면서도 대규모 투자를 단기간에 집행하려면 유상증자가 최적인 방안”이라며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도 유상증자 이후 크게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차입 등의 방식으로 단기간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최근 빠르게 회복하는 유럽 방산업체와의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 유상증자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비용 싸고, 장벽 낮고”... 中企 전용 T커머스 도입 목소리 ↑

**유통학회, 중소기업 판로 포럼**  
이호택 “디지털 판로 자생력 확보  
혼합 수수료 등으로 中企 부담 완화”  
김기문 “T커머스로 판매기회 확대”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T커머스’로도 불리는 전용 데이터 흡수 채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 2월 말 열린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커머스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대주주로, 3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제안’이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계명대 이호택 교수는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의 가장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기 때



한국유통학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왼쪽 6번째부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경도 한국유통학회장,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문에 판로 지원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최근 티메프·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유통 환경이 불안정해진 만큼 데이터 흡수 채널을 도입해 중소기업에게 신뢰도 높은 디지털 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T커머스는 TV홈쇼핑 겸업사업자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5곳, 단독사업자인 KTH, 소핑엔터, 신세계티비쇼

핑, SK스토아, 더블유쇼핑 5곳이 각각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7개 TV홈쇼핑 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를 지향하는 홈앤쇼핑과 중소기업, 농축수산물 전용인 공영홈쇼핑만 T커머스 채널이 없다.

이호택 교수는 “2012년 시작한 T커머스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T커머스 단독사업자 매출만 놓고 보면 약 1조1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13% 이상 고속성장해왔다. 이는 TV홈쇼핑 7개

업체 매출의 20.4% 수준으로 5년전의 12.7%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TV홈쇼핑과 T커머스 판매수수료는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에 1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여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합친 합리적 혼합수수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방송은 방송 이후엔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의 과금 방식 중 하나인 검색어 상위노출에 따른 광고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선 비교적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광고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과금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T커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1%로 ‘그렇지 않다’(12.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존 T커머스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였다.

김기문 회장은 “2012년에 개국한 홈앤쇼핑도 취급액이 2조원에 달하고, 수수료는 대기업 홈쇼핑보다 10% 이상 낮아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T커머스 채널까지 확보하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與, 중견련 찾아... “野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부담”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與, 상속세 개편 침묵 비판  
기업 경쟁력 강화엔 역행  
“해지펀드 먹잇감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당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측에선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 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총실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

업을 해지펀드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활력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기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100~200년, 3~4대가 아니라 10~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힘에 “여야의 나름대로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법 개정안도 막아주는 것이 더 (기업이) 남더라도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케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신세계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에 있는 마테라소 매장.

**신세계가사**  
**수면시장 공략 박차**

‘마테라소’ 매장 30곳 추가

신세계가사가 매트리스 브랜드 ‘마테라소’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8곳인 마테라소 전문매장을 올해 30여개 추가 오픈한다.

이를 통해 제품 라인업과 카테고리 를 대거 확장한다.

25일 신세계가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23년 7월 매트리스 시리즈였던 ‘마테라소’를 수면 전문 브랜드로 확장 개편했다.

마테라소 제품만을 전시·판매하는 전문 매장을 지난해 본격 출점해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총 8개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가사는 이달 말까지 마테라소의 서울·부산 대표 전문 매장 오픈 1주년 기념 특별 행사도 펼친다.

서울엔 신세계강남점, 부산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신세계가사는 행사 기간 프리미엄 매트리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의 대표 모델인 클라우드H와 베이를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20% 할인한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 매트리스 구매 고객이 까사미아의 가구를 합산 700만원 이상 추가 구매 시 인기 드레스룸 가구 레토 시리즈의 서랍장을 선물로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 “실용성부터 미니 감성까지 짝 채웠다”

**미니코리아 ‘뉴 쿠퍼 C5-도어’ 선택**

미니코리아가 ‘뉴 미니 쿠퍼 C5-도어’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니 쿠퍼 C5-도어는 3-도어 모델 대비 70mm 긴 휠베이스를 갖춰 한층 넓은 실내 공간과 향상된 2열 편의성과 기본 275ℓ에서 최대 925ℓ까지 확장되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뉴 미니 쿠퍼 C5-도어는 공간적인 혜택 및 향상된 편의성과 편의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에센셜’과 ‘클래식’ 두 가지 트림으로 선보여 고객 선택지를 확장했다.

뉴 미니 쿠퍼 C5-도어 에센셜 트림

은 미니의 헤리티지가 담긴 참신한 디자인과 핵심 기능 및 사양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기본형 모델이다. 외관은 지붕과 사이드미러 캡을 차체 색상으로 마감해 통일감을 줬으며 검은 윤곽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7인치 그레이 경량 알루미늄 합금 휠을 적용해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실내의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마감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올레핀(TPO)을 사용했으며 직물 소재의 스포츠 시트와 2-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장착해 간결한 매력을 더했다. 2-존 에어 컨디셔닝과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HMM, 국내 첫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9000TEU급 친환경 ‘그린호’ 인수

HMM은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

HMM 그린호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2023년 2월 HD현대상호(7척)와 HJ중공업(2척)에 발주한 9척의 선박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은 65% 이상, 황산화물은 100%,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

HMM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했다. EU ETS(유럽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65% 이상

인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생량을 0으로 간주한다. 또 유럽의 해상연료 규제가 요구하는 2025년 감축 기준(전년 대비 2% 저감)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HMM은 HMM 그린호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 그린호는 HMM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도·지중해 항로 FIM에 투입된다.

HMM 관계자는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연구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친환경 경영을 지속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생성형AI 도입·자유 실험... '검색 포털' 살아남기 안간힘

<네이버>

<카카오>

## 유튜브·챗GPT 파상공세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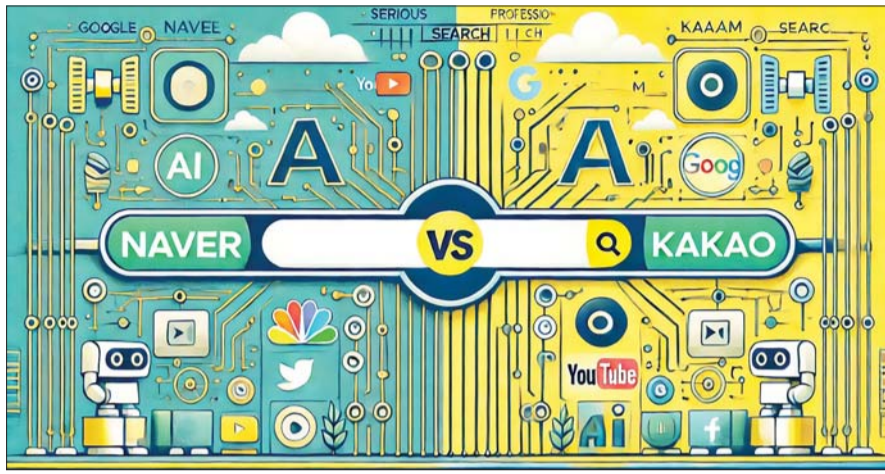
네이버 'AI 브리핑' 정식운영 돌입  
검색 결과물 정리·요약 기능 제공

카카오 사내 독립기업 '다음' 분사  
빠른 의사결정, 실험 환경 등 조성

구글 등 해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공세 속에서 검색 포털로 살아남기 위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검색엔진에 결합하고, 국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연계하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사한 서비스를 기획 중인 구글과 점점 사람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AI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25일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검색엔진 이용 순위는 네이버(65.37%), 구글(27.03%), Bing(3.14%), 다음(2.82%), 기타(1.14%) 순이다. 다음의 3% 벽이 깨진 것은 올해 1월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자국 검색엔진이 선전 중인 나라다. 스웨



토종 검색엔진의 대명사였던 네이버와 다음(DAUM)이 해외 검색엔진 및 SNS와 생성형 AI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카운터의 트래픽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9.74%이며, 다음 순위인 Bing은 3.97%를 차지하고 있다. 두 검색엔진은 국내에서도 한 때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검색엔진의 공세에 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웠다. 네이버는 국산 검색엔진으로서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각종 예약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현재 검색엔진 순위가 5위로 떨어진 다음

은 특단의 대책으로 분사를 추진해 사내 분기기 혁신을 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오는 27일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AI 브리핑'의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앞서 선보였던 국내 첫 AI 검색 서비스 '큐(Que:)'보다 답변을 더 직관적으로 제시하며,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물에 대한 정리·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서비스, 쇼핑과 연계하는 다양한 AI 브리핑 기능으로 검색 결과 확장과 이용자 록인(Lock-in)에 나선다.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이버 검색은 오랜 검색 서비스 경험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로의 연결을 제공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며 "AI 에이전트 시대가 일상에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DAUM)은 초강수를 뒀다. 카카오는 사내 독립기업(CIC)인 다음을 분사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 아래 자유분방한 실험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연초 다음은 앱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으나 큰 성과를 보진 못했다. 모바일 화면 중심 하단에 홈·콘텐츠·커뮤니티·쇼핑 탭을 배치하고,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이어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포털 사이트의 시초로 꼽히는 다음은 2000년대 초반까지 1위 검색엔진이었다. 그러나 대량 메일 발송 시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온라인 우표제' 도입 이후 이용자의 대거 이탈이 이뤄졌고, 같은 시기 네이버가 내놓은 '지식인' 서비스

등이 선전하며 힘을 잃었다.

다음의 분사 추진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카카오노조는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콘텐츠 CIC 분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지회장은 단식농성까지 시작하며 결사항쟁 의사를 내비쳤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빠른 속도로 검색엔진을 제치고 올라오는 유튜브와 생성형·대화형 AI들이다.

지난해 오픈서베이 공개한 설문조사(중복응답)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중 활용하는 검색 플랫폼은 1위가 네이버였으나 2위는 유튜브, 4위는 인스타그램, 8위는 챗GPT로 나타났다. 검색엔진의 자리를 SNS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꺾은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10대는 8.1%, 20대는 7.2%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통한 검색이 점점 자리잡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빅테크, AI반도체 자급화... 엔비디아 중심 시장 재편되나

메타, TSMC와 협업 테이프 아웃  
구글·MS·오픈AI도 자급화 전략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기존 시장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5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발간한 'ICT 브리프(2025-10호)'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브로드컴과 만든 AI 학습용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메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와 협업으로 테이프 아웃을 완료한 뒤 대규모 생산 준비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테이프 아웃이란 반도체 설계를 마친 후 제조 공장으로 설계를 전송하는 과정이다.

자체 AI 칩 개발에는 비용 절감, 메타 특화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성능 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면서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DALL-E 생성 이미지

현,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술 혁신 주도권 확보 등 다양한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그래픽 처리 장치) 시스템인 H100의 단가는 약 2만~4만달러(2940만~5880만원) 수준으로, 35대 구매시 연간 70억~140억달러(10조2900억~20조5800억원)가 들어 자체 칩 개발로 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증가했다. 또 자체 칩 개발 성공시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메타는 AI 학습용 반도체가 성능 및 전력 효율성 목표를 충족할 경우 대규모 생산 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자체 AI 학습용 반도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대규모 AI 모델

의 학습 및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반도체 자급화 전략을 펴고 있다. 작년 5270억달러(774조6900억원)였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조달러(14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AI 연산 특화 하드웨어 TPU 개발을 시작한 구글은 v5p(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특화된 구글의 AI 반도체), v6e(AI 추론에 최적화된 구글의 AI 반도체)를 통해 자체 AI 칩 시장을 형성한 상태다. 구글의 TPU 구매 규모는 연간 60억~90억달러(8조8200억~13조2300억원)로 추정되며, 브로드컴을 통한 주문량 증가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감소하는 조짐이 포착됐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KT 지니 TV '블리피' 시리즈 공개

KT가 지니 TV 키즈랜드를 통해 유튜브 키즈 인기 콘텐츠인 '블리피'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리피는 영국 문버그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시리즈로, 20개국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인 키즈 콘텐츠다. KT는 지난 2020년 문버그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KT는 블리피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4개 시리즈 총 353편을 공개한다.

KT는 이번 시리즈를 공개하며 블리피를 1회 이상 시청한 프라임 키즈랜드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엔터, K컬처 팬 플랫폼 '베리즈' 론칭

아티스트·크리에이터 등 휴먼 IP  
드라마·뮤지컬 등 콘텐츠 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5일 글로벌 K컬처 팬 플랫폼인 '베리즈(Berriz)'를 론칭했다. 베리즈는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등 휴먼 IP(지식재산권)는 물론, 웹툰,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의 콘텐츠까지 전 장르의 K컬처 팬들을 위해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앞서 첫 주자로 합류한 안테나 정승환에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신

인 걸그룹 KiiiKiii(키키)가 정식 데뷔와 동시에 베리즈에 공식 커뮤니티를 열고 팬들과 밀착 소통에 나선다. 내달 초에는 카카오편 원작 드라마 '바니와 오빠들'의 공식 팬 커뮤니티도 오픈한다.

베리즈는 카카오엔터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와 콘텐츠 IP를 포함 엔터 산업 내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해 음악, 웹툰, 드라마 등 모든 장르의 K컬처 팬들이 한데 모여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넥슨, 던애파이터 IP 기반 '카잔' 자신감

얼리액세스 100만... 28일 정식출시

"카잔을 통해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원작 IP를 알리고 싶다."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한 '카잔'이 오는 28일 정식출시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얼리액세스는 이미 100만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항행을 예고한 카잔 개발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던애파이터'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제작한

'카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잔은 네오플이 지난 2022년 여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 3년만에 출시하는 첫 패키지 게임이다. 카잔은 PC와 콘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카잔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던전애파이터 IP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윤 대표는 던전애파이터 개발 총괄 PD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잔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가 더 높다. /최빛나 기자 vitna@

## CJ올리브네트웍스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내달 3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AI(인공지능) ▲비즈니스 시스템 ▲ERP(기업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인프라 서비스 ▲시큐리티 ▲UI·UX(사용자 환경·경험) 총 7개다.

IT 역량을 보유한 학사 학위 이상 졸업자 또는 올 8월 졸업 예정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서류 전형과 직무 테스트(UI·UX 직무 제외) 및 인성검사(CJ CFT), 1,2차 면접 순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인도증시 반등 시동 ETF 수익률 급등세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열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작년 가을부터 부진을 이어오던 인도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개별 주식 주가 상승에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인도 증시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5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ETF 수익률 상위권에는 인도 관련 ETF들이 대거 포함됐다.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가 14.54%의 수익률을 1위를 기록했으며, 'KODEX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가 11.86%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관련 ETF 수익률 상위 포진  
정부 경기 부양책에 증시 살아나  
4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 기록**

**외국인 4개월만에 최대 日 순매수  
소비·생산 호조, 경기회복 기대감  
인구·중산층 확대 등 성장성 주목**

또한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 액티브(6.97%), '에셋플러스 인도일 등기업포커스20액티브'(6.60%), 'TIGER 인도니프티50'(6.56%), 'KODEX 인도니프티50'(6.54%), 'KIWOOM인도니프티50'(6.32%)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흐름은 인도 증시가 이달 들어 4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덕분이다. 인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지수는 2월 말까지 약 7% 하락했으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이달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양대 벤치마크 지수인 니프티50과 센세스30 지수는 각각 6.93, 6.54%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는 21일 하루 동안 747억 루피(약 1조 2759억원)를 순매수하며 4개월 만에 최대 일일 매수액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인



ChatGPT로 생성한 인도 ETF 이미지.

도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중국 중에서도 인도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대비 3.61%)와 1월 산업생산지수(5.01%) 등 최근 발표한 지표도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요인이다. 시장에선 고물가 우려가 완화되면 준비은행이 금리인하를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도 경제 및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인도 중앙은행(RBI)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인도 증시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 경제와 주식 시장은 장기간의 인구 증가, 젊은 생산 가능인구, IIT(인도 공과대학교)로 대변되는 높은 학구열, 영어 사용으로 낮은 언어 장벽, 신흥시장(EM) 내 독보적인 GDP 성장, 소득 개선과 이에 따른 중산층 증가,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대표 지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리스크에서도 벗어나 있다. 인도는 수출 의존도가 낮은 내수 중심 성장 국가다. 2024년 기준 인도 국내 총생산(GDP) 구성중 순수입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미국 관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미 지난 달 인도-미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미국산 원유 및 군사 장비 구매 확대를 약속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DB금융투자, DB증권 사명 변경안 통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금 배당 주당 400원 승인

DB금융투자는 25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DB증권으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현금배당은 주당 400원

으로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곽봉석 DB금융투자 사장은 "지난해 9월 중소형 증권사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면서 "올해 경영 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 중심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고객기반 확충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진정성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관세 완화 기대... 테슬라·팔란티어 '사자'

###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테이크다운 확산에도  
일주일간 2808억 규모 순매수  
레버리지 ETF도 지속 베팅**

최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위는 '테슬라'로, 약 1억 9110만 달러(한화 약 2808억5967만원)에 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독일 선거 기간 동안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정부효율부(D

OGE) 수장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면서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ETF'가 순매수 2위를 기록했다. 순매수 결제액은 1억2253만 달러(1800억8234만원)로, 테슬라의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3위는 미국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로, 순매수 결제액은 약 8457만 달러(1242억9252만원)에 달했다. 팔란티어는 지난해부터 AI 모델 성능 개선과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이

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투자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iBoxx USD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 ETF'가 8028만 달러(1179억7948만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또한,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셔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는 약 6838만 달러(1004억9124만원)가 순매수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특히 기술주와 러셀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며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과 실망으로 부진했던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 이번엔 강하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김대환 기자 kdh@

## 기업은행·농협조합 2000억대 부당대출 적발

**금감원, 부당거래 사례 발표  
전현직 임직원·친인척 등과 공모  
빚쟁, 임원 4명 100억대 사택 제공**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또 2위 가사자산거래소 빚쟁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대에 달하는 고가 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임행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가 연계돼 토지 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관련 58건, 8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IBK기업은행

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

가사자산거래소 빚쟁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앞서 손해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손해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

/허정윤기자 zelkova@

## 코스콤, 증권망 인프라 '스탁넷' 고도화

주문·시세망 통신속도 80% 향상  
자본시장 정보 전달 신속성 개선

대체거래소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장개설 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코스콤이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스탁넷)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스콤은 최근 '스탁넷(Stock-Ne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현물·파생시장의 주문망과, 시세망 네트워크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스타넷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들의 시스템이 연결된 금융투자업무 전용 통신망으로 지난 1991년에 가동했다. 자본시장 현물 및 파생시장의 주문·체결 업무와 시세 정보를 지원하고, 증권 유관기관 연동망을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주문망 및 시세망 모두 통신속도가 기존 대비 80% 이상 크게 개선됐으며, 네트워크 성능과 서비스 안정성도 함께 향상됐다. 특히 시세망은 통신접속 용량이 10배, 서비스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주총서 3연임 확정



교보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석기 대표(사진)이사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박봉린 대표와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로 교보증권을 이끌게 됐다.

이 대표는 모회사인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으로, 2021년부터 교보증권 대표 자리에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Musical

#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당신에게 꼭 맞는 **아치트**”



##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유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사모계절 티켓문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02.332.4902

2025 JWOO Production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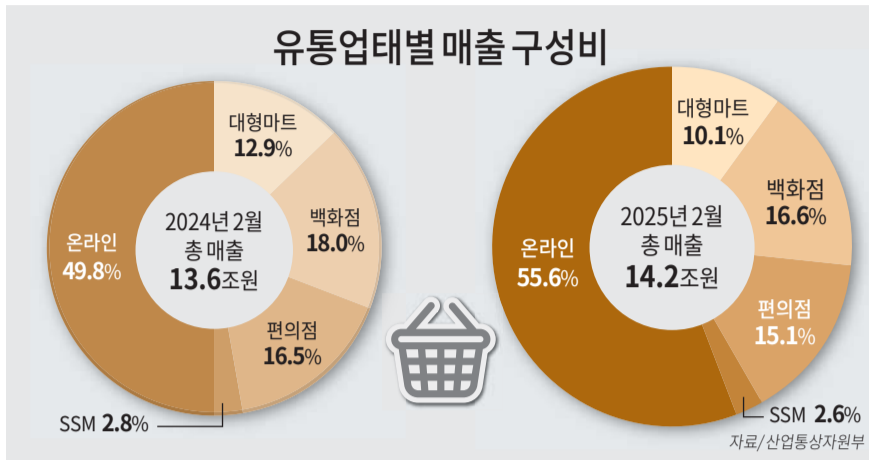
# 오프라인 ‘주춤’, 온라인 ‘선방’ 명절 특수 빠지자 희비 갈렸다

**산업부, 2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비 4.4% 상승 14.2조에도 마트 18.8%·편의점 4.6% 줄어 온라인 비중은 55.6% 첫 돌파**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6.7% 상승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달 설 특수 영향으로 7.7% 빠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성장했다. 온라인이 두 자릿 수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결과다.

오프라인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설 특수가 1월에 이미 발생했고, 2월 영업 일수가 1일 감소함에 따라 대형마트(-18.8%), 백화점(-3.6%), 편의점(-4.6%), 준대규모점포(SSM, -1.2%) 등 모든 업체에서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배송 강화, 음식 배달, e-쿠폰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14.9%), 서비스/기타(76.3%)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 견인했다. 반면, 해외 직구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패션/의류(-9.7%), 스포츠(-9.8%) 등의 부진은 지속됐고, 신하기를 맞아 가전/전자(3.6%) 분야는 5개월 만에 반짝 상승했다.

상품군별은 서비스/기타(35.7%), 해

외유명브랜드(4.5%), 가전/문화(2.9%) 등이 증가한 반면, 식품(-1.5%), 패션/잡화(-5.1%) 등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5.8% 포인트 오른 55.6%를 기록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백화점 16.6%, 편의점 15.1%, 대형마트 10.1%, SSM 2.6%로 모두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심 통과

총 2465억 투입해 노후화 재건축

경기의정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총사업비 246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정부 인근 20여만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 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 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1조 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 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 민간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美 관세 리스크, 韓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

**산업부·무협 ‘대미 통상현안 간담회’ 상호관세 부과 전 업종별 영향 점검**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국 현지 철강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철강 관세조치 등에 대한 업계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회·검찰, 국가기관 신뢰도서 ‘하위권’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군대, 경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가 1위, 검찰이 2위에 자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중앙정부(44.0%)가 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23년 기준 53.8%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검찰(43.0%), 국회(26.0%) 순이었다.

국회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로 유일하게 상승(1.3%포인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60세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24.1%)가 가장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0대(4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국

가기관에서는 19~20세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 사회지표에는 12·3세대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비중이 77.5%로, 전년(82.9%)보다는 5.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 뒤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낮은 종교와 남녀는 전년 대비 늘어나 다소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 인식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였는데 전년 대비 9.5%p나 증가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51.8%로 2023년 조사 때보다 9.5%p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도 전년 대비 각각 1.8%p, 3.1%p 소폭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 파키스탄에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

농진청, 3.2ha 규모 첨단 시설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한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파키스탄에서 KOPIA를 추진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파키스탄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을 6배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OPIA는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생산성의 큰 폭 향상에 고무된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5월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무병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에 5년간(2023~2028년)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첨단 시설을 완비한 3.2헥타르(ha) 규모의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단지를 거점으로 올해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 씨감자 공급량을 연간 16만 톤(파키스탄 전체 소요량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동서발전, 남석열·김봉민 부사장 선임

이달 20일 주주총회 열어 임명

한국동서발전이 신임 부사장 인선을 완료했다. 25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기획관리부사장에 남석열 전 기획본부장을, 신임 안전기술부사장에 김봉민 전 발전처장을 선임했다.

남석열 신임 기획관리부사장은 대구 영진고,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입사했으며,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 동해발전본부장, 울산발전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김봉민 안전기술부사장은 전주 동암고, 전북대정밀기계공학과, 연세대(기계공학 석사), 핀란드 Aalto대(경영학 석



남석열  
기획관리부사장



김봉민  
안전기술부사장

사)를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 동서발전 발전운영실장, 건설처장, 기획처장, 발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소비 줄고 수입산 무관세 ‘이중고’... 유업계, 활로모색 전력

분유·버터·치즈 등 가공유제품 수입단가 국산 대비 50% 저렴 급식·제과 등 수입산 전환 가속

내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는 수입산 유제품 여파로 국내 유업계가 생존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주요 수입산 유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탓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원유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밀려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우유·버터·치즈, 수입산 전환 가속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뉴질랜드·호주·미국 등 낙농 강국의 유제품 수입은 증가 추세다. 특히 분유, 버터, 치즈 등 가공 유제품의 수입 단가는 국산 대비 30~50% 이상 저렴해 급식·제과·외식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산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FTA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올해 2.4% 적용된 관세가 내년부터 0%가 된다.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된다.

관세철폐에 따르면 국내 유제품 총수입량은 2019년 95만8400t에서 2022년 153만4900t으로 증가했다.

외국산 평균 우유도 국산 우유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 매일유업 두유 등 식물성 대체 공략 상하키친·일쁘르노 등 HMR 확대

### 남양유업 테이크핏·백미당에 집중 서울우유 ‘A2+우유’ 프리미엄 전략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매년 수입량이 늘고 있다. 2023년 외국산 멸균 우유 수입량은 4만6241t으로 전년 대비 23.8%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4275t)과 비교해 보면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감소세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2021년 444만8459t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유업계 관계자는 “수입산은 저렴한 데다 품질도 준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산 제품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국내 원유 가격은 리터당 1100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어 가공식품 원재료로 사용되기엔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국내 유제품 가격이 높은 원인은 복잡한 원유 공급 구조와 고정 단가제에 있다. 낙농진흥회가 매년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데, 국제 시세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 국내 원유는 고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업계는 정부에 ▲원유 가격 결정

구조 개편 ▲가공유 중심의 생산체계 전환 ▲수입산과의 최소한의 가격 장벽 유지 등을 촉구했다.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수입 장벽이 계속 허물어진다면, 중소 유업체는 3~5년 내 대거 도산할 수도 있다”며 “단순 보호가 아닌, 국제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통해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공유는 가격을 낮추고, 음용유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자구책 마련

유업계는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생활 변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적극 모색하는 모습이다.

매일유업은 기존 우유 소비 감소에 대응해 매일두유, 아몬드브리즈, 어메이징 오트 등과 같은 식물성 음료와 기능성 제품 라인으로 대체 식품 시장을 공략하며 푸드서비스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2018년 친환경 브랜드 ‘상하목장’을 통해 HMR 시장에 첫발을 들인 매일유업은 최근 외식업 자회사인 엠즈씨드를

앞세워 본격적인 HMR 사업 확대에 나섰다. 크리스탈제이드, 상하키친, 일쁘르노 등 자회사 브랜드의 인기 메뉴를 간편식 형태로 재탄생시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외식 사업도 함께 확장 중이다. 크리스탈제이드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IFC몰에 16번째 매장을 오픈했으며, 샤브샤브 전문 브랜드 ‘샤브상하’의 1호점 개장을 준비 중이다.

남양유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우고 있다. 남양유업은 2021년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를 출시했으며, 단백질 전문 브랜드 ‘테이크핏’과 함께 현재 남양유업 전체 매출의 30%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의 원유로 만든 100% A2 단백질 ‘A2+우유’를 출시해 호평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전 제품을 A2우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FTA는 예고된 변화였으나 정부와 생산자 모두 낙농제도 개편에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하려는 모습”이라며 “피해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 몫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매화수’ 누적판매 1.4억병 돌파

2002년 출시... 스테디셀러 제품 참이슬과 섞어 ‘링겔주’로도 인기

하이트진로는 국내 매실주 대표 브랜드 ‘매화수’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 2월 기준 1억4000만 병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병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7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약 3만 km)에 해당하며, 올림픽 규격 수영장 16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매화수는 2002년 출시된 이후 상큼한 매실 향과 마시기 부담 없는 부드러운 맛으로 여성 소비자나 저도주 선호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2020년 리뉴얼을 통해 더욱 화사한 패키지와 산뜻한 맛을 선보이며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매화수는 고품질 청매실을 저온 숙성한 후 냉동 여과 과정을 거친 매실 원액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매실의 품미와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만의 101년 제조 기술을 담았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국내 과실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도 20대 소비자층을 주요 타겟으로 매화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개강 시즌을 맞아 수도권 대학가 주요 상권에서 새내기 대학생을 겨냥해 ‘전용잔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매화수 특유의 상큼달콤한 맛과 부담 없는 12도 저도주라는 장점을 보다

친숙하게 알릴 예정이다.

실제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 매화수와 참이슬을 1:1 비율로 섞어 즐기는 ‘링겔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매실 향이 특징인 링겔주는 젊은 소비자층, 특히 여성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매화수는 매실의 은은한 품미와 깔끔한 마무리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개강 시즌마다 빠질 수 없는 인기 주류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대상, 멕시코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엑스포 안타드’서 중남미 본격 공략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25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 ‘엑스포 안타드 2025(EXPO ANTA D 2025)’에 참가한다.

엑스포 안타드 2025는 멕시코 내 최대 규모 유통협회인 ‘안타드(ANTA D)’가 매년 주최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식품 및 유통 박람회다. 멕시코를 넘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전 세계 67개국 약 1400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5만개



대상이 멕시코 ‘엑스포 안타드 2025’에 참여한다. /대상

이상의 제품을 선보였고, 5만2000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들이 방문했다.

대상은 이번 박람회에서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푸드(O’ food)’를 필두로 김치, 김, 간편식(HMR), 소스 등 4대 글로벌 전략 카테고리의 우수성을 알린다.

/신원선 기자

## 롯데백, 본점 주얼리 라인업 강화

반클리프 아펠·그라프 동시 오픈

롯데백화점은 지난 21일 본점 1층에 고급 주얼리 브랜드인 반클리프 아펠과 그라프를 동시에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얼리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강북 지역의 프리미엄 주얼리 소비자층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반클리프 아펠은 1906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고급 주얼리 브랜드다. 본점 매장에서는 고전적인 고급 주얼리 제품은 물론 ‘포에틱 컴플리케이션 워치’, ‘럭

키 스프링 컬렉션’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주요 제품군을 만나볼 수 있다.

함께 입점한 그라프는 영국의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원석 채굴부터 세공 작업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한다.

한편, 롯데백화점 본점은 이번 브랜드 오픈을 기념해 내달 6일까지 ‘하이 주얼리 페어’를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쿠팡, 와우회원 대상 ‘글로벌 식품 SALE’

쿠팡이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브랜드 식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이는 ‘글로벌 식품 SALE’ 기획전을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올리브유, 소스, 잼, 파스타, 커피, 스낵, 건강식품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 식품 1000여 종을 엄선해 선보인다.

고객 맞춤형 추천 코너도 운영한다.

/안재선 기자

## 롯데웰푸드 “인도 내 브랜드 입지 확장”

주주 85% 참석 정기주총 개최

롯데웰푸드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양평동 롯데웰푸드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943만4574주) 85.1% 주주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롯데웰푸드 이창업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카카오 등 주요 원재료 부담액 증가 및 불경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신규 브랜드 론칭과 글로벌 시장 확대 등 도전적인 활

동을 통해 더 성장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창업 대표는 올해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 데 이어 글로벌 사업 방향으로 “지난 2월 준공된 인도 푸네 신공장을 본격 가동하여 빙과 불륨을 확대하고, 하리아나 공장을 통해 빼빼로 브랜드 현지 생산을 준비함으로써 인도 내 롯데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스&웰니스’ 브랜드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원선 기자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재선임... “올해 매출 성장 자신”

자본준비금 감액 등 모든안건 승인  
서진석 대표 “결과로 보여드릴 것”

일부 주주, 성장 가능성 의구심  
“집펄트라 관련 데이터 공개해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사 내이사로 재선임되며 2년 더 그룹을 이끌게 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집펄트라’의 매출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셀트리온은 25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 등 모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서정진 회장의 경영 참여도 2년 연장됐다. 서정진 회장은 앞서 2020년 12월 65세 은퇴 후 지난 2023년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셀트리온.

첫 복귀에서 서정진 회장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연간 매출 3조5000억원 돌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설립 등 사업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셀트리온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첫 해인 지난 2024년 매출 3조5573억원, 영업이익 49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45% 증가했고 영업이익

은 24% 줄었다.

이날 주주들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발매한 ‘집펄트라’의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서정진 회장은 ‘집펄트라’ 영업에 직접 나서, 출시 초기 단계에 직접 판매 체제를 구축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셀트리온이 당초 집펄트라의 2024년 목표 매출을 6000억원으로 설정

했던 데 비해 실제 매출은 366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은 집펄트라 출하량, 판매 현황 등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주주들은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며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집펄트라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 측은 “집펄트라 처방환자 수는 현재 지난해 4분기 대비 40~50% 정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 출하 물량은 올해 2월 중순부터 매주 10~20% 정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셀트리온 측은 “미국 시장 진입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인정한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절차가 복잡해 소요시간이 연장됐고 시장 구조가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입고와 출고를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셀트리온은 연간 매출 5조를 목표로 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매출 비중은 유럽 50%, 북미 지

역 30%, 일본과 브라질을 포함한 기타 20%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의장을 맡아 정기 주총을 진행한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올해는 목표 실적을 지키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 시,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주식 동시 배당도 이뤄진다. 셀트리온은 현금 배당은 보통주 1주당 750원 약 1538억원 규모, 주식 배당은 보통주 1주당 0.05주, 약 1025만주를 배당할 계획이다.

서진석 대표는 배당 수익 증가 효과가 높은 약 6200억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해 향후 주주 배당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대표 선임

온코네티라퓨틱스 설립 주도  
공동대표 체제로 책임 경영 강화

제일약품 창업주 고(故) 한원석 회장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인 한상철 제일약품 사장(사진)이 공동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제일약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일파마홀딩스 빌딩 12층에서 ‘제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상철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전문 경영인인 성석제 대표와 한상철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는 1976년생으



로 연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로체스터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 제일약품 부장으로 입사해 마케팅 전무와 경영기획실 전무, 2015년 부사장을 거쳐 2023년 제일약품 사장에 올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제일약품 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를 겸직해 왔다.

제일약품은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가 경영에 필요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회사 성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상철 대표는 2020년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제일약품 핵심 사업 영역을 상품판매에서 신약개발로 확장했다.

그 결과,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설립 4년 만에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자루보정’을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았다. 후속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중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확보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이번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신약 연구개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SK바사, ‘박만훈상’ 수상자 4인 선정

안재용 사장 “故박만훈 정신 계승”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2025년 수상자로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과 접종을 주도한 4인을 선정했다.

25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박만훈상 수상자에는 ▲벨기에 앤트워프대학 피에르 반 담 교수 ▲게이츠 재단 아난다 산가 반디요파디아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브라질여성그룹’ 루이자 헬레나 트라자노 대표 ▲‘뉴인센티브’ 스메타 자네팔리 대표가 공동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30일 수상자들의 내한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신설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수상자는 전 세계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추천받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혁신적인 백신 개발을 주도하며 보건 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故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백신의 개발 및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대 박만훈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 공중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오스템임플란트, 독일서 ‘SOI’ 등 첨단 치과 의료기술 뽐내

IDS 참가... 혁신 신제품 소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29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 치과기자제 전시회(IDS 2025)’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I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과 전시 행사로, 글로벌 유수의 덴탈 기업들이 총출동해 치과 의료기술에 대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격년 주기로 열려 올해 41회째를 맞는다. 6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대 최대인 70개 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확보했다. 핵심 43개 부스는 브랜드 홍보와 이벤트로 꾸며지고, 나머지 27개 부스에서는 자회사 통합 전시 및 상담을 진행한다. 부스 위치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주



IDS 관람객들이 오스템임플란트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요 구역인 4.2홀을 배정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풍부한 혈형 형성으로 골유착 성능이 뛰어난 ‘SOI’를 비롯한 임플란트 제품군과 다양한 임플란트 키트, 유니트체어 ‘K3’와 ‘K5’, 신생골 형성 기능이 우수한 골이식재 ‘A-Oss’ 등을 전시한다. 특히 치과 의사들이 직접 사용하고 체험해보는 핸드온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하이오센, 탐플란, 임플라시우 등 자매 브랜드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교정재료 전문 자회사인 오스템올소 또한 이곳 통합 공간에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오스템올소는 교정 전문의들이 투명교정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임상 적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혁신 신제품을 유럽 현지에서 본격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

## 투스뎀플레이스, 건강 빵 라인업 강화

‘베리 베이글’ 신규 플레이버 선보

디저트 카페 투스뎀플레이스가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 신규 플레이버(2종)와 크림치즈 스프레드(1종)를 선보이며 건강 빵 라인업을 강화한다.

투스뎀플레이스는 지난해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을 출시했다. 특히 받은 유산균을 넣어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은 출시 이후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하며 베이커리 카테고리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인기에도 힘입어 투스뎀플레이스는 최근 저숙 노화 트렌드 확산으로 건강 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신규 플레이버로 ‘멀티 그레인 베이글’과 ‘올리브 치즈 베이글’을 출시했다.

베리 베이글은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 함량이 일반 베이글 대비 45.7% 낮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정통 베이글 제조 방식을 적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멀티 그레인 베이글’은 참깨와 검은깨 등이 듬뿍 올라간 갈릭 어니언 베이글이다. 쫄쫄한 반죽 사이사이 씹히는 다양한 크기의 그레인이 고소한 맛을 더하고, 마늘과 양파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올리브 치즈 베이글’은 반죽에 블랙 올리브와 롤치즈를 가득 채워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한입 베어 물 때마다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스뎀의 레시피로 완성한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 스프레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원성기자 tree6834@

신용 UP 채무 DOWN

신용회복위원회

# 값기 힘든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b>연체 0~30일</b> 신속채무조정	<b>연체 31~89일</b> 사전채무조정	<b>연체 90일 이상</b> 개인워크아웃	<b>부실·우려 채무자</b> 새출발자금	<b>법원 신청·접수 지원</b> (소송구조기관 연계)  <b>개인회생·개인파산</b>
실직/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전 이자율 조정으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채무상환이 어려운분에게 장기간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지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 공인 중 부실·부실우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지원으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 중, 보증인이 없으면서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 방문상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1 맞춤 상담

- 상담시간 : 평일 09:00~17:00
- 필요서류 : 신분증
- 상담비용 : 무료 (신청비용 5만원)

### 인터넷 상담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을 통한 상담 및 채무조정 신청

### 전화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채무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한 채무조정 상담·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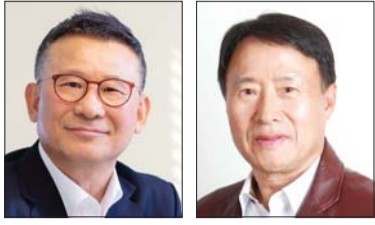
Google Play

Apple store



## 중기중앙회-중기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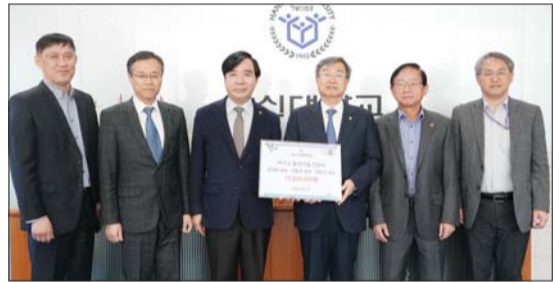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최빛나 기자 vitna@



### 기보-협성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업무협약

기보는 협성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 조영길 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이 협성대 학교 박남수 산학협력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한신대 신학대학원, 온라인 신학석사 발전기금 전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온라인 신학석사(M.T.S)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임충 부처장, 전철 신학대학원장, 강성영 총장, 안병주 장로, 박창수 장로, 이서영 교학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원주 대표이사 선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B2B(기업 간 거래) IT 및 AI 인프라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를 발탁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5일 열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원주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 계열사 디케이테크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2008년 카카오에 합류한 후, 2015년 디케이테크인 대표로 선임돼 약 10년간 기업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김현정 기자 hjk1@

### 인사

- ◆에프앤가이드 ◇이기태 대표
- ◆경희대학교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오주형

### 부음

▲ 이정연씨 별세, 이상열(위키투리 경기인천취재본부장)·이정민씨 아들상 = 25일 오전 5시, 경기도의료원의 정부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031-828-5441

# ‘글로벌 삼성 이끈 샐러리맨’ 한종희 부회장 별세

삼성 TV 사업 ‘글로벌 1위’ 주역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 가족추모공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한 부회장이 37년간 회사에 헌신했다”며 “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제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지난 주말 휴식 중 심장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 한종희 부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김용관 반도체(DS)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부문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 부문 사장 등 전현 삼성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았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찬희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장은 빈소를 찾으며 취재진들에게 “정말 슬픈 일”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재용 삼성전

자 회장은 일정상 직접 조문을 못한 채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나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삼성 전자측은 전했다.

한 부회장은 1962년 3월 15일생으로 천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삼성 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 입사

하여 37년동안 TV, 생활가전, 모바일 등 주요 사업을 두루 이끌며 삼성 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1년 말에는 디바이스 경험(DX)부문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TV, 스마트폰, 가전 등을 총괄하며 ‘생활가전 통합 전략’을 주도했다. 특히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차세대 사용자 경험(UX) 혁신에 앞장섰다.

사내에서는 강한 추진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조직 내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글로벌 1위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한 부회장의 유고에 따라 전영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산불 피해복구 지원

# 주요 기업, 온정의 손길... 성금·구호물품 ‘붓물’

신세계그룹 성금 5억 기탁  
CJ제일제당 1만개 제품 전달  
SPC그룹 빵·생수 7000개 지원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3000 세트  
동아제약 판피린 등 의약품 전달



이마트한 음급구호키트

/신세계그룹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농심

최근 발생한 산불로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 피해가 나을 때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긴급 지원에 나서며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25일 신세계그룹은 의성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구호물품 지원을 통해 이재민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이마트와 이마트24 역시 피해 지역에 긴급 물품을 전달하며 구호 활동에

동참했다. 편의점 업계도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의성군 주민들을 위해 생수, 파이프, 용기면, 캔커피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5000여 개를 지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BGF브릿지’를 가동, BGF로지스 대구·진

주센터를 통해 이재민 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청청북지관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식품업계도 산불 이재민 구호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지역에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등 가정간편식(HMR)과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의 제품을 전달했다.

SPC그룹은 SPC행복한재단을

통해 빵 5000개, 생수 2000개 등 총 7000개의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농심은 라면과 생수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오투기는 컵라면과 컵밥 등 간편식 제품 1만여 개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멸균우유(200ml) 2만 3400개를 피해 지역에 제공했다.

주요 제약사들도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감기약 ‘판피린’, 어린이 감기약 ‘챔프’, 소화제 ‘베나치오’ 등 의약품 3600여 개와 자양강장제 ‘박카스D’ 4000병을 봉사약국 트럭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역시 ‘헬스케어 푸드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썬키스트 음료를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신원선·이청하·안재선 기자 tree6834@

## 권오갑 회장 “복구활동 지원 최선” (HD현대)

성금 7억 기탁... 물자 지원도

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

HD현대는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성금 및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7억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성금은 ▲산불피해 긴급 구호 ▲이재민 생필품 지원·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현대 계열사들은 3억원 상



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사진)은 “갑작스런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중소기업계, 생필품 등 5억 기부

중소기업계가 산불 피해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이재민 대피소에 2억원 상당의 침구류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추

후 이재민이 복귀 시점에 맞춰 3억원 상당의 생활가전과 가구 및 의류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지난해 십시일반 동참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국도요타, 1억 기탁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예술의 한계



홍경안 역  
시시일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는 1897년 4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비엔나공방으로 잘 알려진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아카데미와 역사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종합예술을 추구했던 그룹이면서 개혁운동이다.

빈 분리파하면 가장 먼저 클림트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카를 모저(Karl Moser) 등을 떠올리지만, 멤버 중에는 프란츠 세들라체크(Franz Sedlacek)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인물로, 유럽 미술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작가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세들라체크는 1891년 현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 당시 독일제국)에서 태어났으며 건축과 화학을 전공했다.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다. 1912년 린츠에서 열린 전시회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화풍의 안톤 루츠(Anton Lutz), 세밀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름을 떨친 클레멘스 브로쉬(Klemens Brosch) 등과 함께 린츠 기반의 예술 협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였다. 빈 분리파 정회원이 된 것은 1927년으로,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차갑게 현실을 묘사했던 신즉물주의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그는 흑백의 어둡고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알프레드 쿠빈(Alfred Kubin)과,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남긴 벨기에 작가 펠리시앙 요제프 빅토르 롱스(Felicien Joseph Victor Rops)와 비슷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두운 환상성을 공유한다. 세들라체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문법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불안 등을 기괴한 화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회비판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도망자(The Fugitive)>(1928), <황혼의 노래(Song in the twilight)>(1931), <나무 위의 유령들(Ghosts on a Tree)>(1933)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위의 유령들>이다. 이 작품은 달빛 비추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이한 형상들이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건을 쓴 듯, 독수리를 닮은 해골얼굴의 새 23마리가 나뭇가지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구성이다.

앞사귀 하나 없는 나뭇가지는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한다. 유령 같은 존재들은 불길함의 기호요, 알 수 없는 세계 및 인간의 필멸을 암시하는 장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사회적 공포와 정치적 혼란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는 이와 유사한 주제를 자주 작품 속에 녹여냈고, <나무 위의 유령들>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미술평론가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들의 걸어온 길 되돌아 봐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사실 왜곡, 짜깁기, 일방적 주장, 소송'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같은 단어로 정리된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듣고 있으면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죽을 각오로 양측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다.

특히 MBK 연합은 기필코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기자회견도 두차례 가랑 진행하며 주주와 시장 여론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설득하고 있다.

MBK 연합은 최윤범 회장이 취임 후 회삿돈 수천억원을 신사업 투자라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지인과 친인척의 회사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횡령과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그니오홀딩스에 대한 투자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 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으며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의 부실경영을 문제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갔지만 흥플러스 사태가 터지며 역전되는 모습이다. 특히 MBK 파트너스의 주장을 신뢰했던 여론도 돌아서는 분위기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흥플러

스를 인수했지만 과도한 차입 경영과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부재했다. 또 흥플러스 인수에 성공하자 20여개의 점포를 팔아치우며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경영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투자 자본 회수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 또한 무시했다. 결국 MBK파트너스는 최근 흥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흥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등을 진행한 뒤 기업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28일로 다가왔다. 누가 회사를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그동안 양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27일) http://www.saju4000.com



37년생 운전에 속도 올리지 마라. 49년생 오후에 성과가 크다. 61년생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 73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85년생 남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38년생 사방에 적이 있어 일의 성사가 어렵다. 50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만. 62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4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86년생 바다 건너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39년생 티끌은 모아도 티끌에 불과하니 헛고성. 51년생 우물거에서 송농 찾지 말고 순서대로. 63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75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준다. 87년생 일이 잘 풀리니 겸손하여 보아야.



40년생 해산물을 먹을 때 주의해야. 52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64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성을 가는 사람이 있다. 76년생 싸움은 먼나라의 일이 아니다. 88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41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53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다. 65년생 불청객이 방문하니 마음이 불편. 77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술은 조심. 89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기쁜 하루.



42년생 힘든 일은 시국의 도움으로 해결. 54년생 원하던 곳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절히 기도. 66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78년생 호랑이띠 돼지띠와의 거래가 손조롭다. 90년생 가까운 친구 병문안 갈 일이 있다.



43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55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67년생 동분서주 뛰어다녀도 소득은 별로. 79년생 서남쪽으로부터 온 친지의 도움을 받게 된다. 91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 나가라.



44년생 하찮은 격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56년생 공덕 없이 높은 대만 쳐다보면 어찌하나. 68년생 외출 시 이력서를 특히 조심해야. 80년생 믿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들킨다. 92년생 초치일관하여 말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5년생 슬픔은 깊게 담아 두지 마라. 57년생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69년생 옛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81년생 실수도 흐름에 따라 좋은 경험일 수 있다. 93년생 당장은 못 해도 마음을 집지 말고 꾸준히 노력.



46년생 강한 것은 약한 것이라 했는데. 58년생 지혜도 없는 주제에 운영한다고 큰소리 마라. 70년생 울다가 믿는 일에 다시 도전. 82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해진다. 94년생 남의 말은 사활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47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48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49년생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저금하라. 59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해야. 71년생 집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5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신 댄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 김상회의四季 12간지와 재물복

올해는 12간지로 을사년이고 푸른 뱀띠의 해, 지혜를 상징한다. 뱀처럼 슬기롭게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부귀와 풍요를 상징한다. 그런 상징에 따라 뱀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한다. 12간지는 십간과 십이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율력이다. 해마다 하나의 간지가 부여되고 지지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서 해마다 띠가 생기는데 지지가 12개이므로 띠도 12개다. 12간지의 동물에 따라 상징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

12간지 동물을 생각해보면 상징하는 게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는 걸 알 수 있다. 그 방향을 따라가 보면 풍요와 재물이 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절을 찾아 새해의 복을 기원한다. 복을 기원한다는 건 피곤한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재물을 많이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기원의 마음은 12간지 동물이 무얼 상징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돼지띠 해가 되면 사람들은 재물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예로부터 풍년 재산 복을 상징한다. 로또복권을 사지 않던 사람도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 재산을 상징하는 돼지의 기운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다. 닭띠 해는 어떨까. 닭은 나쁜 기운을 내쫓고 입신양명으로 이끌어주는 상징이다. 닭은 또한 부귀공명을 이루어준다.

나쁜 기운을 누른다는 건 복이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다. 입신양명은 높은 벼슬을 하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출세를 원하는 건 단순히 자리만 바란다는 게 아니다. 그 자리에 따라오는 재물이 많기에 닭띠 해가 되면 입신양명을 꿈꾼다. 쥐띠 해의 쥐는 다산과 재물을 상징한다.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건 풍요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쥐띠가 밤에 태어나면 활동성이 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2	6			3
			8		9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7	
1	7		2	6	5

QR 코드와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김기현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수능 11월 13일... 전년 기조 유지 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율 50%

### 20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공통+선택과목' 현행 체제 유지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 출제 도표 등 활용 EBS 연계 체감도↑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은 예년과 같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한 문항이 출제된다. 전년도 수능과 같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어·수학·직업 탐구 '공통+선택' 구조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 탐구 영역이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시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어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공개  
2026학년도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지 3년 차로, 모든 과목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영역과 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성적 통지는 12월 5일 이뤄진다. 본 수능에 앞서 치르는 모의고사는 6월3일과 9월3일 두 차례 치러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강서 화곡·마포 중동에 모아타운 짓는다

서울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 공급

1636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5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임대 24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이다.

이번에 통합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는 면적 9만 4080㎡ 규모로, 향후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임대 137세대를 포함해 총

면적 1만8612㎡ 규모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 531세대의 주택이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반지하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린 68%, 대학 합격... 사교육 절감 '톡톡'

782명 합격... 전년비 100명 증가

올해는 전년 대비 100명 늘었다. 특히 올해 고3 이상 서울린 회원 대학 합격자가 782명 중 서울 11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고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은 17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서울린'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서울린 회원 67.8%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생들의 '입시 준비에 활용한 교육 서비스' 중 서울린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60.3%로 일반 사교육(16.9%)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또한, 올해 합격생 중 20%에 해당하는 158명은 다른 사교육 없이 '서울린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25일 서울시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자 수와 서울린 참여·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1154명 중 67.8%에 해당하는 7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엔 응시자 1084명 중 63%에 해당하는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 인천시, 적극행정 '전국 1위' 최우수 선정

3년 연속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제도적 노력 등 행정역량 인정받아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 실적과 적극행정 제도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광역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또 한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토대로 행정문화 개선에 나섰고 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 제도, 보호지침 운영,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 지표를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 6월 3일 첫 모의평가... 적정 난이도 유지

학교·EBS 연계, 공교육 범위 출제  
사교육 문제풀이 훈련 문제 배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늠자' 역할을 할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가 3일 시행된다. 모의고사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 EBS를 연계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6학년

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모의평가 시험 영역은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 서울교육청, 조리실무사 315명 수시 채용

5월부터 강동 송파·강남 서초 근무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리실무사로 최종 합격한 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동송파, 강남서초 교

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에 배치되며,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

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응시원서는 26일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이메일(nosainsa2@seoul.go.kr)로 접수받는다. 자격요건,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부내용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공고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7 | 해질 / 18:49

3월 26일(수) /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 6 ~ 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1, 동두천 3/21, 가평 1/21, 파주 2/20, 서울 6/21, 양평 4/22, 인천 6/18, 수원 4/21, 용인 4/21, 평택 3/23, 백령도 5/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전 정권 겨냥 잇단 경호 취소...전 국토 안보부 장관 포함  
▲“日, ‘車관세 면제’ 약속 못 받아...최대 40% 타격 우려” /사진 뉴시스

▲EU 무역수장, 관세전쟁 본격화 앞 방미...이견 좁힐 수 있을까  
▲영국서 세계 최초 ‘양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사례 확인

▲美·日국방, 30일 도쿄서 회담...방위 협력 강화 논의  
▲“두테르테 체포전 중국에 망명 신청”...중국, 관련 보도 부인



국내 유업계 수입산 무관세에 할로모색 총력  
L1



Life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재선임  
“매출 성장 자신”  
L2



# “거품 빼고 투명하게... AI 활용해 부동산 가치 ‘제대로’ 평가”

## 인터뷰

### 임 동 준 자이랜드 대표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갭 통전세·전세사기가 급증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무려 4만명에 달했다.

#. 2023년 A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했다.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했다.

#. 결혼을 앞둔 B씨는 서울에서의 집장만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출로 고민하는 사이 호가만 수천만원이 뛰면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한 개인의 주택 매매부터 금융기관, 전 사회적 이슈까지 양상은 달랐지만 문제의 출발점은 같았다. 부동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임동준(Ray Chetti) 자이랜드 대표는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뒤쳐진 감정평가 시스템과 관련 법의 허점으로 지난 몇 년간 뱅크런과 과다 대출, 전세사기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가치평가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이랜드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가치평가모델(AVM)을 통해 부동산 가치평가를 서비스하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스타트업)다. 사명 ‘자이’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이다. 자이의 가치평가 보고서에 보면 왜 이런 시세가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다.

AVM은 주변 비슷한 매물의 실거래가를 비롯해 교통과 입지, 전용면적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한다.

먼저 이런 가치평가가 왜 필요한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면서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시세는 호가 위주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일이 많았다. 정부 기관이 내놓은 시세도 정치적 영향력과 데이터 조작 시비로 신뢰를 잃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내놓은 부동산 플랫폼 역시 매물의 호가 위주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감정평가가 정확한지, 편향적 인지 검증조차 할 수 없다.

임 대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 제 3자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금융기관의 대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자이랜드의 AVM, 금융기관 제공 시세를 비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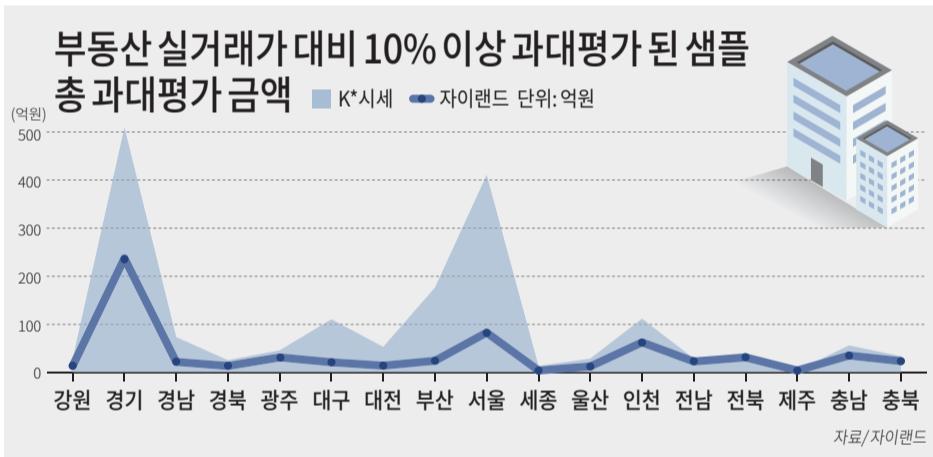
임동준 자이랜드 대표가 서울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AI 기반 부동산 가치평가 프롭테크 실거래가, 교통 등 빅데이터 활용해 정확·투명한 부동산 시장가치 추정

한국 부동산, 뒤쳐진 감정평가 ‘허점’ 주택담보대출시 편향적 정보 될수도 최근, 신축 아파트 가치평가모델 개발 입주잔금 프로젝트에 자사 AVM 활용

글로벌 부동산 매물 정보 플랫폼 구상 국내 넘어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것



테스트를 한 결과, 자이랜드의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았다. 금융기관 제공 시세는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쌌다. 자이랜드는 AVM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세한 정확도와 오류율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임 대표는 “자이랜드 AVM은 전국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97%, 전국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약 90%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며 “비교 가능한 부동산 및 거래 동향, 경매 낙찰률 분석, 총별가격 분석, 시장 환경 분석 등을 제공해 사용자가 투자나 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이랜드는 상업용부동산과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자동 가치평가 모델을 적용 중이다.

최근에는 신축 주택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적용한다. 부동산 클라우드펀딩 전문기업인 위펀딩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잔금 프로젝트다.

그는 “기존 고객들로부터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주택의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새롭게 개발된 자이랜드의 AVM을 통해 1만2000세대의 신축 아파트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위편

딩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글로벌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B2C 플랫폼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12억원 안팎으로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미국이나 베트남 부동산 매물도 같이 볼 수 있는 식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AVM 분야에서 선두업체를 꼽으라고 하면 하우스카나리아와 코어로직 등이다. 특히 코어로직은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국주택가격지수’를 제공하면서 미국 부동산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질로우, 트롤리아 등 기존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AVM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임 대표는 한국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한국의 감정평가 산업은 오는 2029년엔 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물론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4만1000명 붉은악마 함께 뒀다...요르단전 매진, 카드섹션까지 준비 /사진 뉴스시스  
▲한국 다이빙 대표팀, 말레이시아 출신 로마스 코치 영입

▲피겨 차준환 김채연, 세계선수권 출격...올림픽 쿼터 도전  
▲유승민호 정식 출범...대한체육회 27일 이사회 개최

▲KB금융, 한국 육상 ‘차세대 간판’ 나마디 조엘진 후원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오는 30일 구자철 은퇴식 개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그리움을 굽는 토스트 가게'

제가 토스트를 다시 굽기 시작한 건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워서였어요

새벽마다 양배추를 썰고 철판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서 있으면  
힘들긴 해도 마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던 어느 날,  
AI의 도움으로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뵈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와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의 마음까지 배부리 채워드리고 싶으시다던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도 이 가게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립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가게 사장님의 희망 곁에  
늘 KB가 함께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도봉구 창동 '할머니 토스트'  
정수연 사장님  
40년 동안 착한 가격으로 토스트를 만드셨던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은 며느리 사장님의 토스트 가게입니다

시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며느리 사장님과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KB  
국민 함께

###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KB마음가게'

KB금융그룹은 어려운 시기에도 착한 가격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희망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